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1('23-9) | 2023. 9. 1.

핵 안보시대, 재난대응에 제대군인 역할 강화 방안 찾자
권영태

정전 70주년에 다짐하는 6·25전쟁사 고찰 및 작은 소망
이성춘

현재 북한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광열

핵 안보시대, 재난대응에 제대군인 역할 강화 방안 찾자

권영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한양대 수석연구원)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의 보유 및 사용 가능성은 국제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며,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 역시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굳이 다시 들먹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핵 안보 시대, 민과 관의 재난 대응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에 제대군인들의 역할 강화를 통한 핵 안보와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언제라도 한반도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는 시대에, 경험 많은 제대군인들의 활용을 통한 지역 사회의 안전 보장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현재의 민방위를 통한 재난대응체계를 넘어서는 제대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군인들은 풍부한 지식과 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방위와 재난 대응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제대 후 진로 확보와 전혀 연결되지 않아 훌륭한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 제대군인들의 전문 지식을 지역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대처, 어떠한 재난에도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제대군인들을 핵 안보 재난 대응에 투여할 수도 없으며 제대군인 각자의 역량 또한 편차가 클 것이다. 핵 감지와 정보 수집, 핵 비활성화와 해체 지원 같은 고난이도의 전문적인 작업을 맡을 수 있는 제대군인도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긴급 구조와 구호 활동의 핵 안보 시대에 걸 맞는 전문화, 주민 대상 훈련과 교육에는 제대군인을 활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대군인들은 군 복무를 통해 얻은 위기관리, 전략적 계획, 팀워크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 시 위험을 평가하고,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응급 처치, 수색 및 구조 기술,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과 같은 필수 생존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워크샵과 훈련 세션을 조직할 수도 있다. 그들의 전문 지식은 위험 속에서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재난 대비의 역할 모델과 지역 사회 수호자 역할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세미나, 회의, 공개 포럼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일화와 관련 있는 경험 제공을 통해 제대군인들은 사전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공동체 내의 준비와 집단적 책임 문화를 장려할 수 있다.

나아가 세대 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군복무 경험이 없는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공유는 지역 사회가 향후 지역 안보 관련 의미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대군인들은 지역 주민들이 재난 기간과 재난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일들을 감안하면 한꺼번에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동네마다 있는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지부, 자유총연맹이나 민통합 같은 단체들을 일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지역에서 안보와 통일을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들 단체들에 제대군인 역

량을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인식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개별적으로 제대군인들이 이들 단체들에 찾아가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나서서 먼저 지역의 안보통일단체들의 위상을 핵 안보시대 재난대응체계 시스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군인들이 독자적으로 자발적인 별도의 비영리단체나 기업을 창설하여 핵 재난시대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적극 발굴,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성도 있다. 일종의 창업 지원인데, 군 경력과 일반 취창업 지원의 괴리를 극복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초중고와 대학에 안보 관련 동아리를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제대군인들을 각 학교 안보 동아리 설립과 운영에 멘토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자원활동으로 참여하는 제대군인들을 발굴하여 시범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마다 안보 멘토를 상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핵 안보를 포함한 재난 대응 방법은 물론 젊은 세대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일 인식 확대까지도 효과가 클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핵무기와 관련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핵 안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제대군인을 활용한 이러한 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핵 위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대군인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전 70주년에 다짐하는 6·25전쟁사 고찰 및 작은 소망

이 성 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원광대학교 군사학과/군사학연구소 교수)

올해는 6·25전쟁이 정전협정을 맺고 휴전상태로 지나온 기간이 70년을 맞는 해이다. 아울러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지 어언 70여 년이 흘렀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과감히 일어나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의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다른 나라에서 지켜보면 기적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국 중 경제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 낸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의 원동력은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전인차 역할을 주도하였던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는 한미동맹이 절대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전 70주년 다짐과 제안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은 시작되었다. UN은 6월 25일 UN 헌장 1조 1항에 명시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라는 문구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지원을 결의한 것이다.

6·25전쟁은 UN군이 최초로 참전한 전쟁으로 병력지원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및 시설파견 6개국, 물자지원국 39개국이 UN의 깃발 아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UN군이 참전했다는 사실은 UN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라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UN 역사상 처음으로 UN의 ‘집단 안전보장 원칙’에 의거 국제사회에서 집단안보 체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이와같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6·25전쟁의 사료 및 자료들은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할 사항이다.

유네스코 지정유산은 <세계기록유산>,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6·25전쟁 기록물은 세계기록유산에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조선왕조실록(1997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등 총 18건으로 세계 3위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및 각 군의 6·25전쟁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면서 재향군인회 및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다음은 6·25전쟁 공간사의 재발간 사항이다. 그동안 6·25전쟁 공간사에 대한 발간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정훈국 전사편찬회는 1951~1956년까지 한국전란지 5권을 발간하였다. 6·25전쟁 최초의 공간사로서 6·25전쟁에 대한 원천 DB로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970~1980년까지 한국전쟁사 11권을 발간하였다. 11권은 각각 권별로 부도를 편찬하였으며, UN 참전편을 2권으로 작성했다. 이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2004~2013년까지 6·25전쟁사 총 11권을 편찬했다. 1970년대에 간행된 『한국전쟁사』총 11권 증보판의 성격을 물론 1980년대 이후의 연구성과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새로 공개한 자료를 공간사에 활용했으며, 별도로 부도를 편찬하지 않고 본문에 상황도를 수록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6·25전쟁에 대한 공간사는 이와같이 크게 3회에 걸쳐서 발간되었으며, 소요되는 기간은 개략 준비단계에서부터 발간까지 약 20년 정도가 소요되는 방대한 편찬 작업이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과정을 거쳐 6·25전쟁 발발 100주년 어간에는 새로운 공간사가 편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새로운 공간사는 유엔군 측의 수정 요구사항, 북한군의 계급 및 편제, 민군작전 보완, 참전국 참가 전력의 정확한 통계 등 제반사항의 보완은 물론 전투사 위주의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진정한 공간사가 발간되기를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짐해본다.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제안과 다짐은 개인적으로 향후 학문적 입증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진행되어 나아갈 것이다.

용비어천가에 제시된 바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는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대한민국을 수호한 양국 선배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바탕에 서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 “善建者不拔, 善抱者不脫, 子孫以祭祀不輟”(제대로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제대로 품은 것은 빼앗을 수 없으며, 자자손손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명구는 한미동맹에도 적합한 구절이라고 여겨진다. 우리 모두는 이를 기억하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은 전우애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낳았듯이 한미동맹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더 큰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장 광 열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국방대 책임연구원)

북한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

일찍이 김일성 정권 시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핵개발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대를 이은 초장기 프로젝트로서,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북한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하여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 및 위력 확장을 위해 현재까지도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속적인 국제적 비난에 노출되어 왔으며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대북제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북한을 괴롭히고 있기도 하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그 영향력이 많이 상실된 상황이라 판단되고 있어 사실상 지구상의 인간은 어느 정도 그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각종 매체를 통하여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경을 개방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은 수리체계의 불비함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고 있어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량 수급마저 곤란한 지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일인 독재체제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저하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외래 사조에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확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쟁체제를 가동시킴과 동시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한-미-일 안보동맹 체제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체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현재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우주에 대한 개발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체 개발한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발전된 정밀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킴으로 인하여 우주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 정권에게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만이 선진 우주개발에 뒤떨어져 있다는 조바심을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의 현 위기 극복 조치

지난 7월 27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거행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인사가 참석하였는데,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홍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에 러시아의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현역 군인이 참석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러시아 군사 작전의 총지휘를 맡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앞서 언급한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쳐가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한 것이 북-중-러를 묶는 삼각 동맹체제라 추정 되는데, 이는 미국과 치열한 전략적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물론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는 러시아에도 실보다는 득이 많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도 이를 통해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정권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인 선전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번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를 기회로 삼국이 함께 공식적 고위급 만남을 이룸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북한은 러시아에게 대 우크라이나전을 위한 각종 전쟁물자를 지원하고 북한은 각종 기술적 지원을 받는 거래를 성사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북한은 한 때 미국 보다 우위에 있었던 구소련의 우주과학 기술을 전수받는 그림을 그리며 지난 5월 31 실패했던 인공위성 발사를 만회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승절 행사 중, 뒤편에서 있던 쇼이구 장관을 앞으로 부른 다음 김정은이 그를 한껏 치켜세우는 모습에서 러시아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극한의 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사상이완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와 같은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국가가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쌓아놓은 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을 통하여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음과 동시에 밀입국하는 탈북자들을 감시 및 송환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협조를 통해 국경지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북한으로의 대외 사조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북한은 유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에 유해한 각종 활동과 결의들을 이 두 국가를 통해 감소 혹은 제거할 목적으로 현재 북-중-러 삼각동맹체제의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북한은 현재 내외부적인 각종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위 전승절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와 같은 저변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고 친밀감을 고조시키는 데에 있으며 그들이 북-중-러 동맹체제 구축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우리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한 층 더 높은 대비태세 강화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은 건국 이래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상호 신뢰를 근간으로 쌓아온 동맹적 전통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그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중-러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결속력 있는 한-미-일 체제를 구상하는 것도 의미있는 가정이라 생각되는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세 국가가 상호 이익에 근거한 협력체를 구상하는 사안은 시도해 볼 만 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두 번째는 북한의 국방 분야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추적과 후속조치이다. 북한은 현재 군사무기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열악한 경제 사정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금번 기회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양국의 경제적 / 기술적 지원에 대한 추적이 요구되는데, 특히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의 궤도 안착과 관련한 러시아의 대북한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실리적 외교에 대한 노력의 집중이다.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에 대해 글로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국가와 우리나라는 강력한 우방국은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상호 협력을 표방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과의 거리를 가까이하려 하고 있는 이들 양국에 대한 우리의 실리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자원이 해당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상호 협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